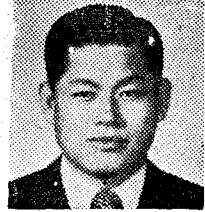


10월의 메모



천호부화장 전무 김영환

1. 10월에 할 일

- 1) 일조시간 계속감소—정확한 점등
- 2) 중순경부터 곳에 따라 첫서리
- 3) 맑은 날씨 계속—산란회복에 노력
- 4) 계사내 전기 배선 점검—노후한 휴즈, 교체, 스위치 청소
- 5) 난로, 연통, 연탄, 비닐, 육추용 깔짚 등 월동용 기재준비,
- 6) 호흡기병 치료제 준비
- 7) 계사 내부와 닭에게 외부기생충구제약을 뿌립시다.
- 8) 케이지 받침대에 뭉쳐 붙어 있는 계분 청소
- 9) 판리자 방의 연탄개스가 새는지의 점검과 장판수리
- 10) 출기전에 빈계사 청소 및 소득완료

2. 업계소식

- 1) 76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 면세지침이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
- 2) 부화장 허가제, 종계장등록제가 이번 국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철따라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부화장들 서리 맞을판.

종계장 등록에 따라 종계장 시설기준도 까다로워 질것이고, 가축보건당국의 철저한 위생 통제하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

3. 갑자기, 만나오던 재산세가 나와 당황하는 양계장이 속출

업연히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재산세의 면제) 4항에 의거 목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안내게 되어 있으니 해당 구청(군)의 세무과에 항의해 보시옵고,

그러나 내무부의 「축산업에 대한 재산세 면

세사무 운용 지침」(지세 1234.9~8368, 68. 9.6 및 세정 1234.9~1029, 1972.1.31)에 의하면 양계업에선 닭 100수당 토지 20평과 건물(축사및 부대시설) 15평만을 면세하여 주도록 수정된 점에 유의하십시오.

재산세 면세는 소득세감면기간과는 관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해당법개정이 되지 않는한)

4. 시장 전망

1. 계란가격; 9월 30일 현재의 서울지역의 알값은 특, -270원대, -250원중, -230원소 -190원경 150원. 9월 20일을 넘어서면서 작은알의 군납증가로 소란이하는 20원씩 올랐다 전국의 국민학교 운동회가 부활된 것도 알값 유지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10월 들어서면서 알값은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11월 15~20일경에 알값의 최저시세를 보일것으로 예측된다.

10월의 산란계 보유수수를 보면 아직 73년의 최고수준과 맞먹는 선에 올라 있어 알값유지가 그리 비관적은 아닌것으로 생각된다.

2. 육계가격;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에 따른 육계유통의 변화가 아직 과도기의 혼돈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육계사양가에게는 많은 불안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행정부의 협조가 없는한 단시일에 해결되기는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3. 노계가격; 육계소매시장에서 그자리를 서서히 뺏기어 가고 있는 노계시장은 군납에 더욱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가고 있어 노계가격은 과거와 같은 좋은 가격을 받는 것은 어려워 질 것 같다. 노계판매의 지역별 창구 일원화 작업이 필요하다.